



HAANY MUSEUM



June **06**



#기다림

노미애 작가

경력 현)책나무그림숲 원장

현)인천아트캠프 회원

수레바퀴꿈교실학교 수료

대구가톨릭미술대 공예과 금속디자인전공

수상 수레바퀴꿈교실학교 베스트강사상 수상

약초이야기

사진: 김명주 유물정리사업단연구원
글: 손주희 학예연구원

작약

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늦봄 끝무렵이나 초여름 5월이면 볼 수 있다. 모습만큼이나 한의학에서도 귀한 약재로 쓰이는 작약을 소개한다.

오묘한 아름다움, 작약꽃

매년 5월이 되면 교내 운동장 옆 넓은 잔디장에 오목조목 핀 작약꽃을 볼 수 있다. 사실 교내 곳곳에 약초가 심어져 있어서 약초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면, 매월 다양한 약초 꽃을 만날 수 있다. 그중 꽃송이가 유독 크고 아름다워 겹장미나 모란꽃과 자주 혼동되는 작약꽃은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넓고 부드러운 여러 잎이 겹겹이 쌓인 모습으로 꽃을 피운다. 재미있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면 그 색과 모습이 화려하게 느껴지지만 가까이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요하고 수줍게 꽃망울이 핀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화려함과 고요함의 상반된 모습에서 오묘한 아름다움이 매력적인 작약은 한의학에서 약재로 쓰임에 인기가 좋다.



김미경작



약초로서의 작약 효능과 기능

한의학에서는 작약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한다. 약성은 차고, 맛은 시고 쓰다. 위장염과 위장의 경련성 동통에 진통효과를 나타내고, 소화장애로 복통·설사·복명(腹鳴)이 있을 때에 유효하며, 이질로 복통과 후중증이 있을 때에도 효과가 빠르다. 부인의 월경불순과 자궁출혈에 보혈·진통·통경의 효력을 나타낸다. 만성간염에도 사용되고 간장 부위의 동통에도 긴요하게 쓰인다. 또 빈혈로 인한 팔과 다리의 근육경련, 특히 배복근경련에 진경·진통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는 많이 쓰이는 약에 속하며, 민간에서는 빈혈에 사용한다. 금기로는 산후에 발열이 심할 때에는 복용을 삼간다.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작약감초탕(芍藥甘草湯) 및 사물탕이 있다.1)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아리랑유언가

1_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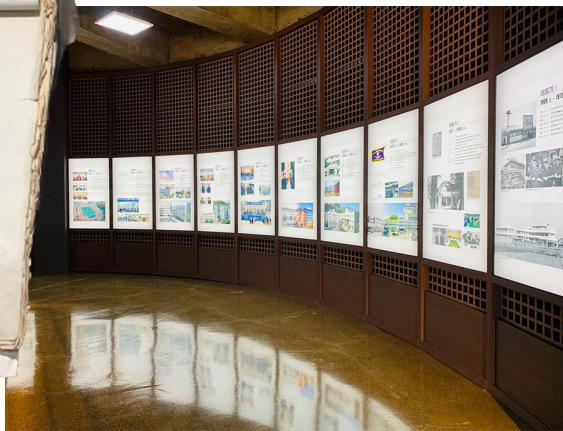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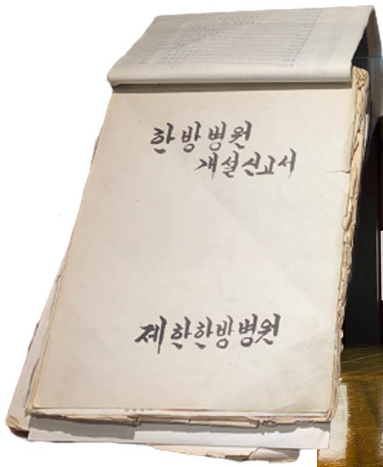
운영시간 ▶ 9:30 - 16:30
 휴관일 ▶ 토, 일(국공휴일)
 위치 ▶ 본관 3층



2_역사관

운영시간 ▶ 9:30 - 16:30
 휴관일 ▶ 토, 일(국공휴일)
 위치 ▶ 한의학관 1층 & 지하1층

3



3_한학촌(찾집)

- 3월~10월
 평일 9:30~20:00
 주말, 공휴일 10:30~18:30
 - 11월~2월(동절기)
 평일 9:30~18:30
 주말 10:30~18:30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찾아오기
<http://museum.dhu.ac.kr/coding/main.asp>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사진: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글: 이인정 학예연구원

program

01. 기본체험프로그램

- 전시관실람
- 민속놀이
- 사물놀이
- 의관복 입어보기
- 향주머니 만들기

02. 창의인성예절 프로그램

- 예절체험
- 다도체험

03. 외국인 한국문화체험

04. 창의체험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 한방향주머니 만들기
- 민화 파우치꾸미기
- 한방유물 파우치꾸미기
- 한지등공예
- 전통문양외파 꾸미기
- 약초꽃 예코백 만들기
- 민화부채 만들기
- 도자기종 만들기
- 천연염색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체 체험연계 박물관 연합전 「우에 살았을고 우리 할매 할매!」의 교육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창의체험 활동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여 한의학과 전통문화를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관람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도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은 전통문화와 현대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따뜻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시실관람

전시해설과 관람활동지를 활용한 전시관람



민속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망던저넣기, 곤장대놀이, 딱치치기 등 야외잔디밭에서 해보는 민속놀이 체험



사물놀이

장구, 북, 징, 썰과리를 이용하여 장단을 배우고 노래와 함께 연주해보는 활동



의관복입어보기

한의학과 의녀, 의관에 대해 알아보고 의관복 의녀복을 입어보는 프로그램



한방향주머니만들기

한방에서 쓰이는 향이나는 약재 5가지의 효능을 익히고 약재를 이용하여 향주머니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다도체험

차 우리기, 손님에게 권하기 등의 예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





상의체험

한방향주머니만들기/민화파우치꾸미기/한방유물파우치꾸미기
한지등공예/전통문양와패꾸미기/약초꽃에코백만들기/민화부채
만들기/도자기종만들기

예절체험

한국의 전통의복과 인사문화를 배워보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예절의 부재현상을 극복하고 현대인의 올바른 가치관과 심성을
개발하여 예(禮)의 마음을 배우는 체험프로그램



5

천연 염색체험

천연한약재염료(치자,소목)를 이용하여 염색 해보는 체험으로
뭉기, 집기, 꼬아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늬를 물들여
나만의 손수건, 스카프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외국인한국문화체험

한국의 전통 의식주 문화를 한 장소에서 체험해볼 수 있으며
체험하는 공간이 한옥건물이 있는 야외인 점이 이색적인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상설 프로그램'으로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서
예약하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museum.dhu.ac.kr/coding/main.asp> 또는 QR코드 접속

*참고: 예약 필수 / 15인 이상 실시 가능



박물관길위의 인문학

사진: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글: 원재영 학예연구원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7년연속 사업 선정된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에서 2021년에는 '한의학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이라는 테마로 인문학과 전통한의학, 문화를 어우르며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실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언택트 시대의 박물관 프로그램 실시의 다른 방안으로 높은 체험 신청과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찾아가는 박물관 실시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문화갈증 해소의 기회도 주고 있다.

대면 방식의 진행 경우에는 한의학과, 항공관광학과, 화장품공학과 등 대구한의대학교 만의 특색 있는 학과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하며 한의학관에 위치한 가상현실체험 프로그램도 신청 가능하다.



2021'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명: 2021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한의학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여행' 6

* 실시: 2021.4.1-2021.12.15(토, 일 국공휴일 휴관)

* 프로그램소개

[기본체험 프로그램]대면

향주머니꾸미기, 한방유물파우치꾸미기, 민화파우치꾸미기 3가지 중 택1 및 민속놀이체험, 사물놀이체험, 의관의녀복체험, 한방차시음체험이 로테이션으로 이루어지며 학과와 연계가능

[박물관문화체험]비대면

향주머니꾸미기, 한방유물파우치꾸미기, 민화파우치꾸미기 3가지 중 택2하여 두가지 키트를 완성하여 활용

[교육비용]

초중고 대상 선착순 무료(단체15인 이상)

[교육형태]

대면(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 현장체험), 비대면(온라인콘텐츠), 찾아가는 박물관

[연계프로]

대구한의대학교 학과와 연계한 자유학기제 및 가상현실센터 체험(사전협의의 시가능)

[프로그램 신청 방법] 대구한의대학교 박물관 누리집 예약 후 전화 필수

[박물관 누리집]

<http://museum.dhu.ac.kr/>

[전화번호]

053)819-1148,1147,1145



이달의 체험

사진: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홈페이지
글: 원재영 학예연구원

이번달은 온라인 콘텐츠 방식으로 대구 두 개의 초등학교에서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온라인 콘텐츠 체험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실시 가능하며 학교나 기관에서 키트를 수령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진행 할 수 있다. 대면방식인 경우 사전 동의하에 개인 정보 수집 및 QR체크 인증,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하루빨리 직접 대구한의대학교 한학촌의 멋진 경관과 좋은 공기속에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뛰놀며 즐겁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5월11일 온라인콘텐츠 프로그램 시청



5월11일 향주머니 꾸미기 체험



5월11일 온라인콘텐츠 활동지 활용

7



5월 14일 향주머니에 약재 채우는 모습



5월14일 설문조사 작성



5월 14일 다섯가지 약재 시향

이달의 행사



밴드 시걸스 공연
일시: 21.06.4(금) PM5:00
장소: 한학촌



버스킹동아리 한울돛대 공연
일시: 21.06.10(목) PM1:00
장소: 한학촌



사진: 김명주 유물정리사업단연구원
글: 손주희 학예연구원



약선식당의 추천메뉴

메뉴는 크게 음(청열)과 양(활혈)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만약 메뉴 선택이 고민된다면 메디키친 메니저가 제안하는 ‘한번 꼭 맛보아야 할’ 3가지 음식을 맛보길 제안한다. ‘왕새우 감바스와 브레드’, ‘허브페스토 안심스테이크’, ‘수퍼푸드 콕 샐러드’가 그것인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식재료가 가진 새롭달콤한 맛과 식감이 어우러져 먹을 때의 재미와 먹고 나서의 편안함이 일품이다. 특히 ‘수퍼푸드 콕 샐러드’와 ‘왕새우 감바스와 브레드’는 양껏 담긴 탱글한 새우와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어우러져 씹는 식감의 재미가 오래 이어지는 음식이었다. ‘건강’이라는 이념을 한 접시에서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메뉴이다. 허브페스토 안심스테이크는 당일 가장 많은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메뉴이기도 했다. 고기 맛은 물론이거니와 베이스로 뿌려진 소스가 은은하면서도 고기 맛을 해치지 않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탱글한 버섯과 도톰한 스테이크를 함께 소스에 묻혀서 즐기며 충분히 식사해보길 바란다.

대구한의대학교 약선식당 하니메디키친 HAANY Medi-kitchen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건강 밥상을 제공하는 약선식당 ‘하니메디키친’이 오픈했다. 대구한의대학교에서 제안하는 건강밥상을 만나보자.

약선식당 하니메디키친 오픈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학생이 건강한 대학’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약선식당, ‘하니메디키친 HAANY Medikitchen’ (이하 하니메디키친)을 오픈했다. 제2행복기숙사(한빛관) 8층에 자리한 하니메디키친은 입구에서부터 눈을 사로잡는 식당 심볼과 장밖으로 하늘이 보이는 시원한 인테리어가 ‘건강’이라는 주제만큼 신선한 인상을 주는 곳이다.

오직 건강밥상을 위해 준비한 정성의 시간

하니메디키친에서 제공되는 메뉴는 실제 교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개발한 메뉴를 전공실습장에서 1차로 만든다. 조리된 음식을 기준으로 건강성, 기호성 및 사업성 가능한 메뉴로 2차 선택되고, 이후 학교 교수진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중의 needs와 선호도에 맞춘 건강지향성 메뉴가 선보이게 되는 것이다. 실로 한 사람의 접시 위 건강을 위해 학생과 중견 셰프, 그리고 전문경력 교수진 등의 다양한 사람이 빚어 담은 정성인 것이다.



웰모닝플레너 + 커피 OR 티
음(청열): 비건 키워 망고 플레너
양(활혈): 귀리 북분자 플레너
과일 인절미 크로플

파이토샐러드
음(청열): 비건 시즈닝 샐러드
양(활혈): 수퍼푸드 콕 샐러드

해피스테이크(데일리스프제공)
음(청열): 비건 스테이크와 메일소스 + 커피
양(활혈): 허브 페스토 안심스테이크 + 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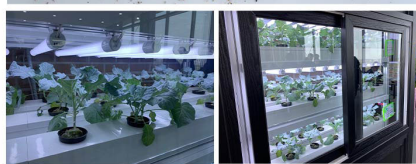
메디타누들
음(청열): 비건 보리면 토마토파스타
양(활혈): 오징어먹물 알리오올리오파스타

건강술밥
음(청열): 모듬 버섯술밥
양(활혈): 모듬 해물술밥

시그니처메뉴
왕새우 감바스와 브레드
삭슈카와 브레드

피자
음(청열): 연근 봉골레 루콜라 피자
양(활혈): 마 베이컨 포테이토 피자

카페메뉴
커피류, 예디드, 요거트스무디, 꽃차



메디키친의 실제 메뉴판으로 음/양으로 구성된 점과 비건을 위한 메뉴가 특징이다.

운영시간 : 월-토(11:00~20:00) / 최종오더 19:00
(브레이크타임 14:30~16:30)
위치: 대구한의대학교 제2행복기숙사(한빛관)8층
문의: 매장 053.819.1249 / 사무실 053.819.1245



바람과 바라봄

- 내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내 인생이 결정된다 -

우리들은 세상에 태어나기전부터 누군가의 바람을 안고 이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그 삶을 이미 준비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어떤 꿈을 꿀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을 안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누군가의 바람을 안고 태어난 우리들 스스로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이 사회가 아무리 꿈꾸게 하지 못할지라도 자신만의 꿈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의 꿈이 정말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디에 돌건지에 대한 바라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소망하는 일들중에는 이루어지는것들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시선이 어떤 것을 바라볼것인가 하는 바라봄에 따라서 모든 것은 결정지어진다는 것이다. 바람을 안고 태어나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소망들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향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바라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다. 내 자식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이웃집 자식을 바라보고 내 아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대화를 하며 공감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웃집 아이가 100점 맞은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라 방황하는 내 아이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이웃의 1등하는 엄친아, 엄친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풀찌하는 내 자식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집 아이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할 때 나도 이미 뒤쳐진 부모가 될 뿐 아니라 내 아이도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긴 인생의 여정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곳을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바라보고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와 자식 세대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영재와 천재들이 키워지고 있고 1등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 아이는 1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내 아이를 바라보며 실망하기도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 또 다른 바라봄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21세기는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적 특징과 그 특징들로 인하여 새로운 인재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거의 인재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아이들이 마냥 풀찌가 아니라 1등 아이로 보일 것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살아가고 나아가야 할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위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지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바라보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 얽매어 있다보면 언제나 풀찌 인생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바라봄의 차이를 깊이 고민하고 이젠 이웃집 아들 딸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아이를 바라보고 옆에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오는지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갈 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풀찌인생으로 끝날 삶이 일등 인생으로 바뀌는 인생역전이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오늘도 꿈을 꾸며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며 달리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늦은 나이이지만 그래도 꿈을 꾸며 목표를 세우고 달려본다. 나도!!!!!!!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사진콘테스트

5월, 봄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5.3(월) - 5.20(목)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에서 주최하는
대구한의대학교 봄사진 콘테스트

'대구한의대학교의 봄' 사진 모어랏~

봄이 왔나봄
봄사진
콘테스트

- 콘테스트 상품
한학촌 카페 음료 이용권
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1만원
발표 : 5/25(화)

- 참여방법
1. 대구한의대학교 봄을 찍은 사진(산구, 숲, 건물, 꽃 등)
2. 본인인스타그램에 #대구한의대학교봄이왔나봄 해시태그 후 업로드
3. 다른 참가자 사진 구경하고 좋아요 누르기
교내 학생 및 일반인 참여 가능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문의전화 : 010-2520-1600
https://www.instagram.com/haany_museum/



도현정

화장품공학부 3학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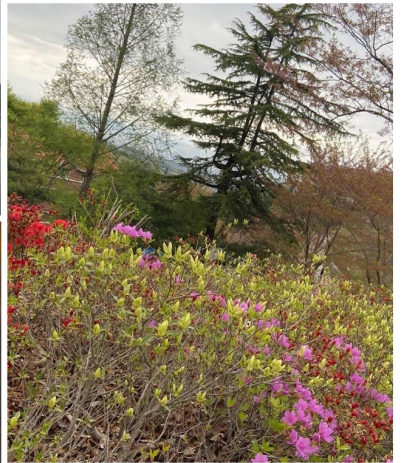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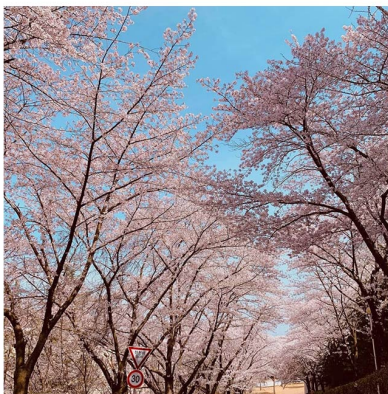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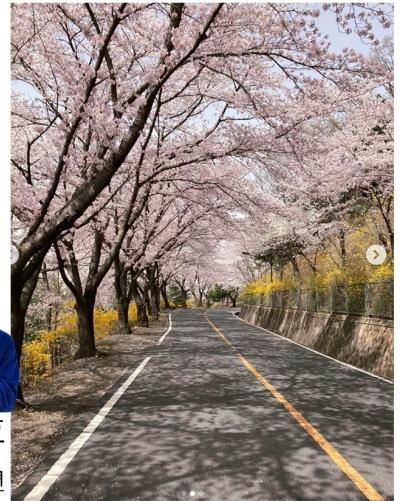
양인규, 박강우

한방스포츠의학과 3학년



이준호

한방스포츠의학과 2학년



창간일: 2021. 6. 1

발행일: 2021. 6. 3

발행: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발행인: 박종현

기획총괄: 이세주

기획디자인: 김명주 손주희

편집: 김명주 손주희 이인정 원재영 백현주

